



# 평론의 원칙

## 1. 반론의 기회

### ▲ 2014-1042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구 주 모

#### 〈주문〉

경남도민일보 2014년 2월 13일자 20면 「배한성 전 창원시장님 참 오랜만입니다」 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다음은 경남도민일보가 내보낸 위 칼럼 내용이다.

『배 시장님과의 악연이 시작된 것이 10년 이전으로 기억합니다.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부정선거로 인하여 배 시장님은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고, 시장님 부인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아 결국 시장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경남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경남민언련) 대표직과 창원시민단체 협의회 상임대표도 맡으면서 배 시장님 퇴진운동을 주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우상가 앞에서 주말을 제외하고는 오후 5시면 어김없이 혼자서 퇴진 선전전을 6개월 가까이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접해보니 배시장님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몇 자 적어 봅니다. 2003년 6월 19일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지기로 한 배 시장님 사퇴촉구 기자회견이 창원시청 공무원들의 브리핑룸 폐쇄로 인하여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바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도를 넘어선 과잉 충성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배 시장님이 수장으로 있었던 창원시청 공무원들의 행태가 이

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시민들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시장님만 쳐다보면서 공직 생활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누군가의 지시로 경남민연련 사무실을 방문한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인맥이란 인맥은 모두 동원해서 시민단체 사무실을 왜 방문했겠습니까? 제발 시내 한가운에서 시장님 퇴진운동 그만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진 사람인지 그 부탁을 단 한 번도 귀담아 들어주질 못했습니다. 배 시장님,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시민단체와 지루한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배 시장님은 재판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자숙이나 반성 없이 지지자를 통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보인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배 시장님 측과 반대로 엄벌에 처해 달라고 3245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과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훨씬 더 크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결문을 배한성 시장님과 한나라당은 가슴깊이 되새겼어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배 시장님의 주름살뿐이었습니다. 부정선거로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인물이 또 다시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창원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창원시민을 ‘졸’(卒)로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배짱 좋게 출마 선언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배 시장님의 중도 사퇴로 인해 보궐 선거를 하면서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출마의 변을 접하고 나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1969년부터 말단 9급 면서기로 시작해서 2004년 창원시장 재임까지 약 30여

년 간 창원시와 경남도에서 근무한 바 있다. 수많은 행정경험을 그동안 많이 쌓았다”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경험의 결과가 부정선거를 잉태한 것은 아니었는지 물어 봅니다.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적발된 인원만 60명이었습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인원수입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가장 비난 받아야 할, 선거 부정으로 중도 사퇴한 인물이 또다시 시장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도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똥·오줌을 못 가린다지만 아직도 창원시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부정선거로 사퇴한 인사에게 공천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제 모든 걸 접으시고 창원 토박이들 단체인 ‘삼원회’나 잘 간수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혹시 어쭙잖은 글로 인해 심간을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빕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51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글은 경남도민일보의 고정난인 ‘갱상도 블로그’에 실린 블로거 강창덕 씨의 칼럼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배한성 전 창원시장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경남지역 인터넷 블로그들의 집합체인 ‘갱상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올라온 글 가운데 일부를 오프라인 신문 같은 이름의 고정난에 소개하고 있다.

블로거 강 씨는 위 칼럼에서 2002년 창원시장에 당선된 배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 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난 사실을 지적하며 『창원시민을 ‘졸(卒)’로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배짱 좋게 선언을 할 수 없었을 것』 『많은 행정경험의 결과가 부정선거를 잉태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 야유와 조롱조의 자극적인 문구를 섞어 시종일관 배 전시장을 비난했다.

하지만 강 씨의 이 같은 비난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장일 뿐이며, 특히 10

여년 전에 일어난 배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주장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배 전 시장으로서는 문제의 글이 앞으로 선거운동과 그 결과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박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경남도민일보는 비록 개인 블로그의 칼럼을 전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의 글이 특정인에게 명예훼손은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했지만, 위 해당 지면과 그 이후 지면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정확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여론 형성을 강조하는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 「평론의 원칙」 ③(반론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